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오는 28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4회 광주시소년소녀합창제'를 펼친다. 왼쪽부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 광주송원초등학교합창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공>

8개 소년소녀합창단 '맑은 미성', 초가을 밤 수놓는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동명초등학교합창단', '광주송원초등학교합창단' 등 지역 소년소녀합창단 8개 팀이 모여 때묻지 않은 미성(美聲)을 선사한다. 총 326명에 달하는 대규모 출연진이 아름다운 앙상블로 가을밤을 수놓는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상임지휘 권기원)이 '제4회 광주광역시 소년소녀합창제'를 오는 28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광주·전남 지역 소년소녀합창단 및 부부합창단, 장애인합창단 등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권기원 지휘에 맞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부르는 '주물 찬미하리'로 막을 올린다. 루마니아 출신의 헝가리 작곡가인 레베네 죄죄시가 시편을 기반으로 창작한 곡이다. 다양한 화음이 돋보이는 'Wah bah dah bah doo bee'도 울려 퍼진다. 이 곡은 권 지휘자가 아동소년소녀합창단에 재직할 당시 선보였던 작품이다.

이어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박의영)은

'광주광역시 소년소녀합창제'

28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연합 합창곡·드라마 OST 등 선사

'광주사랑의부부합창단' 특별 출연

현대작곡가 gyorgy orban의 'Gloria'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민요 '포카레카레 아나'를 들려준다. 마오리족의 사랑 노래인 '포카레카레 아나'는 6·25 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군에 의해 국내에 들어온 뒤, 연가로 번안되며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비추게 하리라'는 광주동명초등학교합창단(지휘 양정은)의 목소리에 실린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Fiat Domini 소년합창단(지휘 백정빈)은 로버트 프리즈만의 '아베 마리아', 정보형 곡 '푸른 꿈을 꾸는 새'를 부른다.



'광주파랑새합창단'

"그의 사랑 서로 나누면서 항상 믿을 증만하리라 /(-)/ 같은 소망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었네"

주에 대한 사랑을 인류 보편의 가치로 확산하는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지휘 이현숙)의 '모두 기뻐해 모두 감사해'도 울려 퍼진다. 편곡에 이복남.

친숙한 아리랑들을 하나로 구성한 '아리랑 모음곡'도 레퍼토리에 있다. 말양, 진도, 경기, 강원 등

다양한 지역 아리랑에 투영된 민족의 정한이 모음곡 형식으로 어우러져 특유의 감각을 자아낸다.

오병희 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영국의 작곡가 칼 젠킨스 곡 '아디에무스'는 광주송원초등학교합창단(지휘 김지연)의 목소리에 실린다. 그중 라틴어로 "우리가 다가올 것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노래 '아디에무스'는 2018년 모 TV 광고 등에 삽입, 자연의 웅장함을 보여주는 BGM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된 '광주파랑새합창단(지휘 김창식)'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드라마 OST로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SBS에서 상영한 이승기, 신민아 주연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OST '여우비'는 가수 이선희 원곡으로 알려졌다. 합창의 감성으로 재해석된다.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중 미도와 파라솔이 함께 부른 '슈퍼스타'도 선율을 더한다. "괜찮아 잘될 거야/ 우리 널 믿어 의심치 않아"라는 가사는 희망의 메시지를 환기하기 충분하다. 이외 특별 출연하는 광주사랑의부부합창단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막은 소년소녀합창단 7개 전체 인원이 들려주는 연합 합창곡 '웃는 나 웃는 날'(박진영 곡)로 내린다. 지휘는 광주교대 및 조선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살레시오초 교감을 역임한 김준수 지휘자가 맡게 된다.

권기원 상임지휘자는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 소년소녀합창단원들이 한데 모여 기량과 재능을 펼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지속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인재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하는 합창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니 관객 여러분의 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전석 5000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나의 노래' 전시 장면.

자연의 서정 품은 꽃과 풍경 '나의 노래'

임근재 개인전, 30일까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 1층

사람들은 기쁨 때나 슬플 때 노래를 부른다. 꽃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한 소절 한 소절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부르기도 한다.

작가들에게도 저마다 인생 노래가 있을 것이다. 희로애락이 담긴 노래는 예술적 지향을 뜻하기도, 삶의 이정표일 수도 있다.

화가 임근재에게 '나의 노래'는 어떤 노래가 있을까. 임 작가가 '나의 노래'를 주제로 ACC디자인호텔 갤러리 1층 별관에서 전시를 연다. 오는 30일까지.

장성 출신의 임 작가는 고향의 정서와 감성을 지니고 있다. 고향을 지키며 고향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그에게 노래는 자연의 소리가 아닐까 싶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늦은 밤 동물이 전해오는 안부 소리 등이 노래일 수도 있겠다.

전시실서 만나는 꽃들은 화사하고 싱그럽다. 고혹적인 나뭇잎은 때 묻지 않은 자연의 서정을 품고 있다. 꽃보다 더 꽃 같은 꽃그림은 어린 시절 시골 담장에서 보았던 꽃들을 떠올리게 한다. 유리잔에 담긴 나뭇잎은 금방이라도 줄기를 뉘뉘어 밖으로 손을 건넌 것도 같다.

꽃그림 외에도 시골 마을의 풍경을 이미지화 한 작품도 있다. 노랗게 물든 고목의 풍성한 자태와 토담 너머로 보이는 정겨운 기와집은 마음을 푸근하게 한다.

많은 현대인들은 고향을 잃어버렸지만 임 작가는 여전히 고향에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화폭에 투영된 읍유시인의 감성은 세상의 샛별 소리를 저만치 밀어낸다.

임 작가는 "초가을을 맞아 진행 중인 이번 전시는



'나의 노래'

꽃과 자연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며 "누구에게나 내면에 자리하고 있을 자연에 대한 감성을 떠올려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임 작가는 조선대 미대와 동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광주미술 부회장을 맡고 있다. 18회 개인전을 비롯해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을 개최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 광주시전 운영위원 및 심사를 맡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딸에 대하여'



'그녀에게'

'딸에 대하여'·'장손'·'그녀에게'·'해야 할 일'

웰메이드 기대작 4편 광주극장서 만나요

소설 원작을 섬세한 필치로 그린 '딸에 대하여', 가업을 잇던 대가족의 붕괴 '장손', 장애아 엄마의 10년 투쟁기 '그녀에게' 등. 지난해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았던 네 편 웰메이드 기대작들이 한가위를 맞아 극장을 찾아온다.

광주극장이 오는 26일 '딸에 대하여' GV(관객과의 만남)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들을 스크린에 올린다. 먼저 지난 4일 개봉한 '딸에 대하여'는 자녀의 동성 연인과 동거하게 된 엄마가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이해' 대신 '최선의 이해'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오는 26일 오후 7시 20분 이미랑 감독과 오민애 배우가 GV를 통해 얼굴을 비친다.

신인사 정치부 기자 '상연'이 장애아 엄마가 되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초점화한 '그녀에게'도 눈길을 끈다. 11일 개봉작으로 배우 김재화가 발달장애아의 엄마인 주인공 '상연' 역을 맡아 밀도 높은 감정연기를 펼친다. 실제 국회 출입 정치

부 기자였으며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인 류승연 작가의 '사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을 원작으로 재창작했다.

고요했던 대가족이 붕괴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 '장손'도 같은 날 개봉한다. 신에 오정민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라이징 스타부터 베테랑 배우들이 환상 '케미(호흡)'로 합을 맞춘다.

회사 인사팀이 구조조정을 통해 동료들을 퇴출시키는 영화 '해야 할 일'은 25일 찾아온다. 통상적인 해고당하는 자의 시선이 아니라 해고하는 자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작품이다.

경북 문경의 풍광을 포착한 신동일 작 '문경', 장광명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장건재 감독의 '한국의 삶어사'도 추석 연휴 기간 개봉한다. 외화 중에서는 '희생' (15일), '퍼펙트 데이즈' (15, 18일)도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책 먹는 여우, 도서관을 삼키다'

ACC재단 초청전, 10월 20일까지 어린이문화원

책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책을 먹게 된 여우가 있다. 놀랍게도 책을 다 읽고는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는 삼켜버린다. 그러나 여우에게는 한가지 고민이 있다. 책을 삼킬 만큼 좋아하는 데 반해, 책값이 비싸 맘 놓고 읽을 처지가 못 된다는 것. 고민 끝에 여우는 도서관에 들어가 책을 훔치기로 하는데...

지난 2001년 독일 출신 프란치스카 비어만이 펴낸 '책 먹는 여우'는 지금까지 14개국에 번역 소개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서도 90만부 넘게 팔렸으며 초등 1학년 권장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맛있게 책을 먹는 여우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 ACC재단)은 '책 먹는 여우, 도서관을 삼키다' 초청전을 연다. 오는 10월 20일까지 ACC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

이번 초청전은 주니어 김영사와 독일 아동도서 작가인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ACC 어린이문화원에 맞춰 기획, 제작됐다.)

전시는 모두 5개 부문으로 짜여져 있다. '쉬어볼까, 읽어볼까', '책을 맛볼까', '거닐어 볼까, 그려볼까', '찾아볼까', '써볼까' 등이다.

구성은 여우가 책을 읽고 마지막 도서관에 찾아가는 모습까지를 아우른다.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르고 읽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체험 활동도 있다. 여우 친구인 '화가 미라의 스튜디오' 코너에서는 초상화를 직접 그리고 여우 가면도 만들어볼 수 있다.

오는 9월 추석 연휴에는 빵으로 책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이와 연계한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될 계획이다.

이처럼 팀장은 "이번 초청전에서는 어린이들이 작가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는 '구구절절' 코너가 운영된다"며 "다양한 체험활동과 다채로운 전시 콘텐츠는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 책 고르는 법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극단, 연극 '양림' 출연 객원배우 공개 모집

"정말 대단하다. 나도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나중에 이곳 양림에서 우리 꼭 같이 공연하자! 너와 함께 스타디움을 연주할 날을 기다리며" ('양림' 중 손이의 독백)

광주시립극단이 오는 11월 22-24일 총 4회에 걸쳐 펼치는 연극 '양림'에 출연할 객원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연습, 공연 일정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공동 연출에 김하정.

남자 배역 10명(서요셉, 최홍중, 서커스 단장, 김생욱 등)과 여자 배역 7명(박순이, 박애신, 서서평 등)까지 총 17명을 캐스팅한다.

광주시립극단의 제23회 정기공연 '양림'은 광주시립극단 제1회 창작희곡공모 당선작을 극화한 것이다. 질곡의 시기를 거친 뒤 죽음의 땅을

생명의 숲으로 변모시킨 광주 양림동 사람들의 삶을 담아냈으며, 원광연 예술감독의 취임 후 첫 연출작으로 기대를 모은다.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을 오는 23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필수지정곡목 '지정연기', '자유연기', '특기', '면접'을 포함해 진행한다.

합격자는 오는 26일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응시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참조.

원광연 예술감독은 "충현원 설립자인 박순이 선생과 어머니 박애신, 오방 최홍중 등 역사적 인물들로 채워지는 공연이다"며 "'양림' 무대를 빛낼 끼와 열정 가득한 출연진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